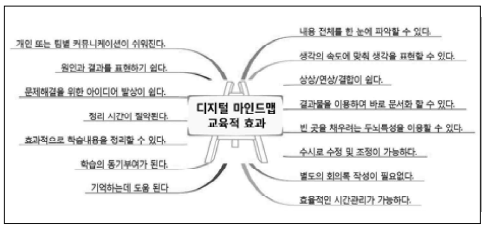
자유학기제 선도학교로 '우뚝'

상인천중,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어져



상인천중학교(교장 김홍근)는 10월 27일 충주교육청의 자유학기제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42명의 자유학기제 T/F팀과 담당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웹기반 협업시스템 방식을 활용한 상호 협력 시스템을 통해 학생 배움 중심 수업사례와 자유학기제 운영 지역 협력 방안 사례 공유하고 확산하고자하는 충주교육청의 계획은 상인천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여러 면에서 벤치마킹의 우수사례가 됐다.

먼저 상인천중학교의 자유학기제 4개 영역에서 1학년 학생 전체가 활용하는 온라인 협업학습을 할 수 있는 디지털 마인드 맵 프로그램인 SEM플래너 프로그램은 교과 자유학기제 수업 중 학생들은 교사들이 개설한 협업방에 접속해 모둠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해 올리고, 공유해 정리된 마인드 맵 프로그램으로 발표를 한다.

개인별 혹은 모둠별 프로젝트 과제를 할 때에도 학생들은 교사별로 개설된 협업방에 과제를 올리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수행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SEM플래너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간의 업무협의 및 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적 추진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인천시 동부교육지원청의 학교긴 연합활동을 할 수 있는 '동부 꿈두레 프로그램'을 통해 인근학교 6개교가 온라인 협업을 통한 자유학기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교사들은 자유학기제 연구회에서 수업개선에 대한 협의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미래전사 Maker' 동아리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3.0으로 협업기반 활동공간을 마련해 자유학기제 수업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며, 인천시 강화교육지원청과 함께 상인천중학교는 2015년부터 온라인 협업기반의 SEM플래너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쓰고 있다.

OECD가 제시한 미래의 핵심역량 3영역(자율적 행동 역량, 상호작용을 위한 도구 활용 역량, 이질적인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도구로 디지털 마인드 맵 활용을 통해 상인천중학교의 학생 배움 중심 수업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하여 수업방법개선과 교육적 성과에 획기적인 변화와 성장을 가져와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하는 1%의 창의·융합인재를 키워가고 있다.

상인천중학교에서 미래 진로탐색 워크북은 미래핵심기술(무인자동차, 드론, VR, 3D프린터, 사물인터넷, 홀로그램, 웨어러블 컴퓨터 등)과 미래 사회변화에 따른 직업 탐구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24개 프로그램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중학생을 위한 비즈쿨 '곤충사육', '미래전사 Maker' 동아리 등 특화된 21개 동아리활동이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충주교육청에서 교사단을 인솔해 상인천중학교에서 하루 일정의 프로그램 체험과 수업참관을 한 송진각 교장은 "미래지향적인 곤충사육 비즈쿨 창업동아리 특화프로그램과 디지털기반의 협업형태의 수업방법에 매우 놀랐으며, 인천시교육청의 지원과 교사들의 ICT 역량을, 자유학기 수업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무엇보다 디지털 마인드맵을 도구로 융합, STEAM, 협업, 토론이 동시에 이뤄지는 송을남 교사의 수업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충주교육청은 상인천중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 적용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56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를 키워가는 상인천중학교의 수업혁신에 대한 의지와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북부과학교육관 영재교육 프로그램 '놀면서 알아가는 과학'

지난 11월 7일부터~15일까지 인천북부과학교육관(관장 김혜숙)에서는 평일 저녁시간을 활용해 '놀면서 알아가는 과학'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강정환) 관내 중학교 영재학급 학생들과 과학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최신 과학기술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천체망원경 등의 과학실험 기자재와 과학 완구를 직접 다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배양하고 미래 과학에 대한 꿈을 키워 준다'는 목표 아래 드론 날리기, 천체관측 등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도심에서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했고 재미있는 별자리 이야기와 함께 흥미로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놀다보니 어느새 과학과 많이 친해진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고, "앞으로 모든 과학수업이 이렇게 이뤄졌으면 좋겠다." "완벽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번 북부과학교육관을 활용한 '놀면서 알아가는 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관내 140여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경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과학교육활동을 직접 경험했는데, 이 경험들을 발판으로 과학기술의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안용섭 기자 ays@

다 같이 하나 되는 가치

인천 청천중, 2016 연구학교 공감·나눔 한마당 참가

인천 청천중학교(교장 한상옥)는 11월 3~4일 이틀간 지난 2015학년도부터 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 교과와 체험활동을 연계한 다문화교육이 전개됐다. 연구학교를 운영해 온 청천중학교는 이번 연구학교 공감·나눔 한마당 종결보고회에 참가했다.

특히, 청천중학교는 2년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다문화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주제로 다문화 학생만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교사·학부모·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의식 고취에 중점을 뒀다.

'연구학교 공감·나눔 한마당'이라는 합동보고회에 참가한 청천중학교는 부스 운영 및 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청천중학교에서는 다문화 연구과제 산출물을 전시하고 다문화이해교육 실천 사례 발표를 통해 다문화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다문화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교육과정 운영, 다문화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대표적인 3가지 연구과제로 설정되어 실제적인 다문화 이해교육 및 체험교육을 실천했다.

다문화 정책연구학교를 2년간 실시해 온 결과 일반학생들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의 폭이 넓어져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이 함양됐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교육을 실시해 진로 및 학교적응력이 향상됐음을 알 수 있었다.

한상옥 교장은 "청천중학교는 앞으로도 교육과정에 녹아든 다문화교육을 지향해 글로벌 시대에 맞는 인성과 감성을 키우고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의식이 함양되도록 앞으로도 연구과제의 일반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새내기 교사랑 생생 토크'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11월 29일 15시부터 17시까지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관내 유·초·중학교 교사 41명과 '새내기 교사랑 생생 토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이청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세 번째 '마음잇기 토크 릴레이'로 현장 교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공감의 인천교육정책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것이다.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토크에서 유치원 교사부터 초·중학교 특수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다양한 학교급의 교사들은 신규 교사로서 느끼고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과 수업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땀과 노력이 빛나는 무대

인천상정초, 상정엔젤스트링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가져

인천상정초등학교(교장 조정길)는 11월 11일 선린교회에서 상정초등학교 학생오케스트라인 '상정엔젤스트링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올 한해 땀 흘려 준비한 무대를 전교생이 함께 관람하고 뜨거운 박수로 응원했다.

상정엔젤스트링오케스트라는 지난 2011년 창단, 현재 6년째 운영해오고 있으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상정엔젤링오케스트라는 '학교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1부에서는 클래식 곡들을 멋지게 연주했다. 위풍당당 행진곡(Edward Elgar), 반짝반짝 작은 별(Wolfgang, Amadeus Mozart), 교향곡 40번 1악장(Wolfgang, Amadeus Mozart) 이렇게 세 곡을 들려줬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제1회 상정동요제 때 수상한 친구들의 맑은 목소리로 정기연주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3부에서는 뮤지컬과 영화 OST를 들려줬다. 일본 애니메이션인 마녀배달부키키, 벼랑위의 포뇨, 이웃집 토토로의 곡들을 메들리로 엮어 신나는 무대를 만들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의 무대를 위해 양상블팀이 지휘자 없이 도레미송(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을 멋지고 단합된 연주로 들려줬다. 이어 오케스트라 선생님들이 리베라 탱고를 맛깔나게 연주했다.

마지막 4부에서는 기쁘고 설레는 발걸음으로 학교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교 가는 길(노영심)과 어머님 은혜(박재훈)을 연주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세상(박학기)을 연주하며 정기연주회는 뜨거운 박수와 환호 속에서 막을 내렸다.

조정길 교장은 "오늘 무대를 준비한 오케스트라단원 및 지도하신 선생님들의 땀과 노력이 빛나는 무대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연주였다.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모여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가듯 우리들도 서로 조화를 이루며 생활하자"고 소감을 말했다.

안용섭 기자 ays@

특별한 중학생의 가을 나들이

구월여중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현장 체험학습 실시

구월여자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교장 서정옥)는 11월 19일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방송중 학생들은 개인 사정 등으로 평균 40~50년간 학업을 중단하고 학업 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로 평소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았다. 이날은 학업을 잠시 뒤로 하고 그간 학교 적응, 학업 따라기 등으로 지친 방송중 학생들의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오전 : 냅킨 쟁반 만들기, 오후 : 연극 관람)을 가진 것이다.

오전의 냅킨 쟁반 만들기 시간에는 쟁반에 젯소를 칠한 후, 물감을 칠하고, 자신이 원하는 냅킨을 골라 패턴대로 오리고, 오린 냅킨을 쟁반에 붙여 마지막으로 바니쉬를 발라주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하는 물감칠하기와 패턴 가위질이 익숙하지 않고 서툴지만, 매 과정 서로 도와가며 모두가 자신만의 멋진 냅킨 쟁반을 완성했다. 모두 자신의 완성품을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해하였다.

이후, 문학경기장 내 문학시어터로 이동해 '사랑이란' 연극을 관람했다. 암전으로 연극의 시작을 알리고 한 배우가 무대 위에 등장했다. 배우가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자 방송중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손을 들어 참여했다. 연극 내내 배우들과 호흡하며 관객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연극이 끝나고 방송중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 급우들과 함께 연극을 관람했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서정옥 교장은 "방송중 학생들의 학업으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안용섭 기자 ays@

인천부현동초,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학교 운영

인천부현동초등학교(교장 조숙자)는 2016학년도 시교육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폭력예방 어깨동무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해 2년째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 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 간의 소통을 주제로 선정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11일 18시부터~21시 30분까지 계양체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사제동행 배구 경기관람 행사에는 총 80여 명의 학생 및 교사가 참여했다. 친구들과 지역 연고팀인 대한항공팀을 응원하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생활안전부장 교사 강상철은 "평소에 학교 수업이 끝나도 학원에, 숙제에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들에게 선생님과 함께하는 배구장 나들이를 통해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강다영(6학년 전교학생 회장)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시원한 배구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큰 목소리로 열심히 응원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이 됐다. 그리고 오늘 하루는 학원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소통의 장이 되었길 기대해 본다.

안용섭 기자 ays@